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

곽정현¹ · 최현희^{2*}

The Role of Taekwondo as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Kwak, Jeong-Hyeon¹ · Choi, Hyun-Hee^{2*}

Abstract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 based on the need for and purpose of research in providing basic data on what role taekwondo should play as a physical activity for the disabled in the future by looking at Taekwondo as a disabled sport. First, as a sports for the disabled, Taekwondo should be given a chance to make the disabled feel happy and overcome themselves anytime, anywhere, and through professional sports, they could gain new challenges and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domestic competition. And it is necessary to foster professional leaders who can understand and guide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led. Second, the role of Taekwondo as a disabled sport needs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by disability, facilities and economic support for disabled taekwondo trainees, an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taekwondo self-defense programs for the disabled.

Key words: The role of taekwondo, physic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sport for all, competition sport, sport coach for disabled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DSU-20190001).

* durichh@gdsu.dongseo.ac.kr

1. 가천대학교(Gachon University)/교수

2. 동서대학교(Dongseo University)/교수

I. 서론

태권도는 실전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이제는 신체는 물론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다는 태권도의 의의 속에서 생활체육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스포츠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곽정현, 2017). 이러한 태권도는 2019년 현재 전 세계 209개국에서 약 1억여명이 수련하고 있는 글로벌 무도스포츠로서,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국제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세계태권도연맹, 2019a).

과거에는 태권도를 포함한 무예의 수련은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해보이는 사람이 강해보이는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예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일지라도 실전에서 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무예로서 태권도는 신체가 건강한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서도 발전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의 형태 및 등급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를 구분하는 것처럼 태권도 역시 장애등급에 의해 다양한 경기와 수련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권도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가지게 되는데 먼저 겨루기의 경우 차기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장애 선수는 하기 어려운 형태이다. 또한 순간적인 판단과 공격속도에 따라 승패가 좌우하기 때문에 신체의 협응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주동진, 심태영, 박기용, 2016).

장애인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지고 있어서 감각의 통합기능과 사회

적응력에 많은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몸과 마음의 기능적인 제한으로 인해 움직임의 기회, 즉 신체 활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비만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황성원, 2013).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싶어도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김경숙, 오아라, 구교만, 2009; 용필성, 2013).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체육 및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증가하고 있다(홍양자, 정복자, 2005).

특히 최근 장애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참여의지는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의 치료적인 목적으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에서 이제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자(정현도, 2013) 스포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태권도에 참여하는 목적에도 부합하며, 재활로 시작한 태권도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등(박희봉, 2015), 장애를 가진 태권도 수련생들의 감동적인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태권도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은 억눌려 있던 자아를 표출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있다(김태욱, 2019).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는 최근에 와서 스포츠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장애인태권도는 2009년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창립되고, 그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인준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이후 국내는 물론 2020년 도쿄패럴림픽, 2022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위상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배우근, 2019).

특히 비장애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던 장애인태권도 분야는 점차 활성화 되면서 분야

별 전문가 육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기원에서는 1~3급 장애인사범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는 판정의 공정성 제고 및 심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태권도심판 자격연수를 실시하였다(김수정, 2018).

이렇듯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 태권도와 관련된 학위논문은 약 20여편이고, 학술논문은 약 18편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장애인의 태권도 수련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김만수, 황성호, 김근국, 2018; 송지빈, 고무송, 송채훈, 2017; 이정수, 이상인, 심영균, 2019), 생리적으로 미치는 영향(김영진, 정태운, 조효구, 김태일, 2012; 김형훈, 2019; 최경훈, 박기용, 김종민, 2012; 황성원, 김동원, 김한철, 2015), 장애인 태권도지도자에 관한 연구(권서준, 2018; 김지태, 심영균, 2018; 정태린, 김지태, 2016), 장애인 태권도 경기(정현도, 2013a; 정현도, 2013b, 정현도, 2019)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를 통해 향후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서 태권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었다.

II.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

1. 생활체육으로의 장애인 태권도

생활체육은 개인이 여가시간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체육 혹은 스포츠 활동으로 개인

적 측면에서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공석배,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체육을 즐겁게 참여하는 인구가 많을수록 행복한 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욕구충족, 복지수준향상, 그리고 사회참여라는 차원에서 비장애인보다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대한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 장애인들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육의 가치는 비장애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가자들에게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이미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권도 현장에서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의 정관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2019)의 비전으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협회 조직과 소외된 태권도인들의 장을 만들면서 모든 태권도 장애인들이 ‘건강과 다 함께 태권도’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2018 서울 글로벌 태권도지도자 포럼에서는 태권도를 통해 백혈병을 극복하고 2016년 안양 세계태권도한마당에 참가했던 캐나다의 샘 존스톤의 사례와 씨와 장애를 딛고 시각장애인 최초로 태권도 4단을 취득한 김주호씨의 강연을 통해(권기범, 2018), 태권도 수련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의 품새대회에는 단체전에 장애인 가족을 포함한 부별구성을 통해 생활체육분야에서 장애인의 태권도대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대한태권도협회, 2019).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전과 극복으로 누릴 수 있는 감동의 드라마가 아니라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영부인의 말처럼(정일환, 2019),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써의 태권도는 비장애인만이 누리는 신체활동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전문체육으로써의 장애인 태권도

전문체육은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포츠 조직 및 종목 단체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온 영역을 의미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체육의 의미는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활동’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태권도 분야의 전문체육을 담당하는 세계태권도연맹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장애인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정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009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제1회 세계장애

인태권도대회를 개최하여 16개국 3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분과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겨루기 표준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5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서 2020년 도쿄장애인올림픽 정식종목으로 태권도를 채택하게 되었다(정봉규, 2019).

세계태권도연맹에서 구분한 등급분류 규정에 따르면 겨루기는 K, 품새는 P를 앞에 덧붙이며 <표 1>과 같이 표기한다(세계태권도연맹, 2019b).

표 1. 세계태권도연맹 장애등급규정

Impairment(장애분류)	Sport Class
Visual Impairment(시각장애)	P10
Intellectual Impairment(지적장애)	P20
Physical Impairments(지체장애)	P30
Physical Impairments(지체장애)	K40
W/C Classes	P50
Deaf(청각장애)	KP60
Short Stature(저신장)	P70

*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9).

Athlete classification rules

또한 겨루기 경기의 체급구분은 <표 2>와 같은데 장애인을 위한 성인 겨루기 경기는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인만 가능하며 남, 녀 모두 3개 체급으로

표 2. 세계태권도연맹 겨루기 체급구분

Male divisions	
Under(-) 61kg	Not exceeding 61kg
Under(-) 75kg	Over 61kg & not exceeding 75kg
Over (+)75kg	Over 75kg
Female divisions	
Under(-) 49kg	Not exceeding 49kg
Under(-) 58kg	Over 49kg & not exceeding 58kg
Over(+) 58kg	Over 58kg

*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9).

Athlete classification rules

구분되고 남성은 61kg이하, 75kg이하, 75kg초과로 구분되며, 여성은 49kg이하, 58kg이하, 58kg초과로 구분된다.

품새 경기의 구분은 <표 3>과 같은데 남녀 모두 Junior(12-15세), Under 30(16-29세), Over 30(30세 이상)으로 구분된다.

표 3. 품새경기의 부별 구분

Event	Age
Female Junior	12-15 years old
Male Junior	12-15 years old
Female Under 30	16-29 years old
Male Under 30	16-29 years old
Female Over 30	30 years old and older
Male Over 30	30 years old and older

*출처: 세계태권도연맹(2019).

Athlete classification rules

데플림픽에서는 <표 4>와 같이 부별로 구분하였으며, 참가가능 나이로 겨루기는 만 15세 이상, 품새는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데플림픽, 2019).

표 4. 세계농아인올림픽(데플림픽) 태권도 부별구분

Event	Men	Women	Mixed
-58kg	✓		
-68kg	✓		
-80kg	✓		
+80kg	✓		
-49kg		✓	
-57kg		✓	
-67kg		✓	
+67kg		✓	
poomsae team	✓	✓	
poomsae pair			✓
poomsae individual	✓	✓	

*출처: <http://www.deaflympics.com/sports/TK/regulations>

이러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국제대회는 <표 5>와 같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태권도대회는 <표 6>과 같다. 종합대회는 세계농아인올림픽(데플림픽), 패럴림픽(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이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 주최의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각 대륙별 대회 및 국가주최 대회 등이 있다. 국내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내에 태권도가 채택되어 있고, 그 외 생활체육대회 등이 있다. 이러한 대회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골수암에 왼손 잃고 패럴림픽서 새 도전...태권도는 큰 선물”이라는 덴마크 장애인태권도 대표 리사 선수의 사례(배진남, 2019), “잘듣지 못할 뿐 문제는 안 돼요”...장애인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해성여고 최수빈의 사례(강성철, 2019) 등은 장애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이나 태권도 수련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국제장애인태권도대회

	대회명
종합대회	세계농아인올림픽(데플림픽)
	패럴림픽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패럴림픽) 2022년 항저우 대회 채택
세계대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대륙별 대회	아시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아프리카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유럽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팬암장애인태권도대회
	오세아니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주최 대회	US오픈 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멕시코장애인태권도오픈대회
	춘천코리아오픈장애인태권도대회
기타	김윤용컵국제오픈장애인태권도대회

표 6. 국내 장애인태권도대회

대회명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태권도대회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장배 시도대항전국태권도대회
전국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생활체육)

이렇듯 점차 발전하는 전문체육으로서의 장애인 태권도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에서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지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청각 장애와 지체 장애를 구분하여 전담제로 임명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였다(한혜진, 2018a). 태권도의 모국인 대한민국이지만, 비장애인분야에 비해 장애인부문은 '약체'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수발굴과 육성이 강화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한혜진, 2018b).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선수단이 구성되고 있는데 애경그룹에서 태권도·탁구 등 장애인 스포츠선수단 출범(류시훈, 2018)하고, 충남도청에서 장애인·비장애인 9명(장애인 선수 2명)으로 여자 태권도팀 창단(박주영, 2019)하는 등은 향후 전문체육 분야에서 장애인 태권도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진다.

3.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지도자 교육

과거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한 인식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여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도자는 대부분 비장애인을 지도하는 식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도자양성을 위한 자격취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종목의 전(前) 단계인 기초운동을 시키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1, 2급)이 있다(그림 1).



그림 1.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기존 및 현행 비교표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9). 체육백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의 경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1급은 해당종목 2급 장애인 취득 후 해당종목 지도경력 3년 이상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는 각 종목별로 대한체육회에서 검정하고 각 종목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지만, 태권도의 경우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태권도 관련 자격은 장애인 태권도 사범(1~3급)으로서, 자격 연수과정은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인해 보편적인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도 능력을 배양, 양성하기 위한 자격과정이다.

이러한 지도자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없이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차별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태권도를

수련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국기원, 2019).

표 7. 장애인사범 자격조건

자격조건	
1급	태권도 8단 이상, 장애인 2급 사범
2급	태권도 6단 이상, 장애인 3급 사범
3급	태권도 4단 이상, 22세 이상

Ⅲ.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는 아직까지 생활체육보다는 전문체육 분야에서 보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및 공간의 제약, 프로그램의 부재 및 지도자의 부족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장애인 태권도의 목적은 건강 유지 및 재활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에 있다(최 천, 2013).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별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전문체육분야에서는 이러한 장애별로 부가 구성되어 겨루기 및 품새에 참가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별 태권도 프로그램의 개발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지체장애의 경우는 신체제약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상지장애와 하지장애의 경우는 쓸 수 있는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권도 수련 중 겨루기는 하지장애가 있는 경우는 쉽게 하기 어렵다. 이에 강대길(2018)은

“하지 지체장애인 휠체어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고찰”에서 휠체어를 통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으며, 신체적 조건에 따라 건강증진을 위한 태권도 수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차기동작의 구사는 어렵겠지만, 휠체어를 타고 상체를 활용한 태권도 기술의 발휘는 또 하나의 겨루기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의 경우, 장애인 체육으로 특성화된 골볼, 문볼처럼 소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각장애 태권도 수련생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용어 관련 수어”가 발표되었는데(정봉규, 2019), 시각장애를 위한 소리의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장애의 경우 비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수련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품새의 경우 동일하게 외우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단순한 동작으로 구성하여 품새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을 위한 시설 및 경제적 지원이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태권도 미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발표에서는 2022년까지 5대 추진전략의 10개 핵심과제 이행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태권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발표한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태권도 교육을 받고 수련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양성, 장애인 태권도 교실 운영 등, 장애인 생활태권도를 보급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다(김주희, 2019).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별 거점 도장을 선정하여 장애인들이 쉽게 태권도를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의 참여도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호신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비장애인들에 비해 제약이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양승주, 2019),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이슬기, 2017), 우리는 쉽게 장애인에 대한 폭력소식을 접하게 된다.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그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방어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들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여성태권도문화원(2019)에서는 “Smart-3S호신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자신감 향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호신술을 보다 보완함으로써 장애인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태권도 호신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태권도는 이제 태권도 현장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태권도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발전 공로자에 대한 장관표창을 수여했고,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에서는 장애인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하였으며(임장훈, 2019), 청각장애인인 태권도 유단자가 청각장애인의 태권도 교육을 위한 관련 용어 318개의 수화를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는 등(배준우, 2019), 사회 전반에 걸쳐 태권도를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많은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화배우를 장애인 태권도 홍보대사 위촉하고 해당 배우가 태권도의 미래가치로서 장애인 태권도를 위한 역할 할 것(한혜진, 2019)이라는 포부를 밝힌 것처럼 태권도를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영위는 이제 당연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서 태권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는 생활체육으로 장애인들도 언제 어디서나 즐겁고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문체육으로 국내회 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전 및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은 장애인 태권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고, 장애인 태권도 수련생을 위한 시설 및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호신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간의 편견 없이 살아가는 시대이다. 장애인이 편견없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인 중 하나가

신체활동이며,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그 역할을 반드시 해줘야 할 시대적 요구가 있으며, 이를 위해 태권도인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제언

이 연구는 장애인 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생활체육, 전문체육, 지도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길(2018). 하지 지체장애인 휠체어 태권도 지도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강성철(2019, 7월 29일). “잘듣지 못할뿐 문제는 안 돼요” ...장애인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연합뉴스.
- 공석배(2019).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운동참여 동기가 운동중독과 참여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정현(2017). 태권 ‘道’의 도복과 태권도 ‘競技’의 유니폼 (경기복), 그 논쟁에 대한 고찰. 국기원태권도연구, 제8권 제4호, 191-211.
- 국기원(2019). 장애인사범자격현황.
- 권기범(2018, 11월 19일). 2018 서울 글로벌태권도지도자포럼 25~26일 개최. 스포츠월드.
- 권서준(2018). 장애인태권도지도자 자격증 취득동기와 직업가치관 및 직업선택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추계 학술세미나자료집, 75-76.
- 김경숙, 오아라, 구교만(2009).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모형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제17권 제1호, 65-95.
- 김만수, 황성호, 김근국(2018). 태권도 수련경험이 중도장애인들의 사회적능력 및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제26권 제1호, 53-59.
- 김수정(2018, 4월 16일). 장애인 태권도 전문화 시대... KTAD 전문심판 교육 개최. 무카스.
- 김영진, 정태운, 조효구, 김태일(2012). 태권도 차기 수련이 지적장애인의 평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1권 제5호, 1271-1280.
- 김주희(2019, 12월 6일). ‘일상에서 누리는 태권도’ 문체부, 태권도진흥기본계획 발표. 뉴시스.
- 김지태, 심영균(2018). 장애인태권도 지도자의 역할스트레스가 감정노동과 번아웃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57권 제6호, 323-334.
- 김태욱(2019). 체육교사의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이미지 유형 및 특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훈(2019). 청각장애인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신체 구성과 체력평가비교. 국기원태권도연구, 제10권 제1호, 161-173.
- 데플림픽(2019). <http://www.deaflympics.com/sports/TK/regulations>
- 류시훈(2018, 11월 8일). 애경그룹, 태권도·탁구 등 장애인 스포츠선수단 출범. 한국경제.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 박주영(2019, 1월 25일). 충남도청 장애인·비장애인 여자 태권도팀 창단...9명으로 구성. 연합뉴스.
- 박희봉(2015, 7월 31일). ‘세계태권도한마당’ 장애를 뛰어넘은 감동. 티브로드 경기뉴스.
- 배우근(2019, 10월 12일). 태권도, 中항저우 장애인AG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 스포츠서울.
- 배준우(2019, 8월 14일). “안 들려도 배울 수 있

- 어야”...청각장애인 유단자의 특별한 졸업식. MBB뉴스.
23. 배진남(2019, 9월 28일). 골수암에 원손 잃고 패럴림픽서 새 도전...“태권도는 큰 선물”. 연합뉴스.
 24. 세계태권도연맹(2019). Athlete classification rules-as of May 14.
 25. 세계태권도연맹(2019). 세계태권도연맹 홈페이지. <http://www.worldtaekwondo.org>
 26. 송지빈, 고무송, 송채훈(2017). 장애인 태권도 선수의 스포츠 열정이 경기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육발달학회지, 제25권 제3호, 343-352.
 27. 양승주(2019, 9월 23일). 두 번 우는 장애학생, 학폭 피해 4년새 5배. 조선일보.
 28. 용필성(2013). 장애인체육정책에 대한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9. 이슬기(2017, 7월 6일).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심각, 안전한 삶 ‘희망’. 에이블뉴스.
 30. 이정수, 이상인, 심영균(2019). 장애인의 태권도 참여를 통한 운동만족, 운동수행스트레스 및 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8권 제4호, 365-375.
 31. 임장훈(2019, 9월 17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태권도시범단, 무주 태권도원 방문. 전북일보.
 32. 정봉규(2019). 청각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용어 관련 수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33. 정일환(2019, 10월 15일). 김정숙 여사 “장애인 체육활동, 감동 아닌 일상 돼야”. 이투데이.
 34. 정태린, 김지태(2016). 장애인 대상 태권도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권 제2호, 157-166.
 35. 정현도(2013a). 장애인 남·여 태권도 선수들의 체급별 득점, 금지행위 및 승패판정 비교 분석.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제7권, 1-9.
 36. 정현도(2013b). 장애인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내용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19-27.
 37. 정현도(2019).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태권도 선수 현황 및 경기 내용 분석. 국기원태권도연구, 제10권 제3호, 169-189.
 38. 주동진, 심태영, 박기영(2016). 스포츠(경기)와 무도(체육교육)로서 장애인 태권도 수련의 의의.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4권 제1호, 355-369.
 39. 최경훈, 박기용, 김종민(2012). 지적장애인의 혈중 및 소변내의 BCAA의 변화 추이.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69-77.
 40. 최천(2013). 태권도의 사회적 공유가치. 무예연구, 제7권 제2호, 1-13.
 41. 한국여성태권도문화원(2019). Smart-3S 호신술. 도서출판 상아기획.
 42. 한혜진(2018a, 12월 29일).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청각-지체 전담제 코칭스텝 임명. 무카스.
 43. 한혜진(2018b, 8월 13일). ‘약체’ 韓장애인 태권도, 2020 도쿄 앞두고 일취월장. 무카스.
 44. 한혜진(2019, 12월 2일). 영화배우 홍경인, 장애인 태권도 홍보대사 위촉. 무카스.
 45. 홍양자, 정복자(2005).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9권 제3호, 27-36.
 46. 황성원(2013). 태권도 수련에 따른 지적 장애인의 하지 등속성 근기능 및 뇌기능 지수 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47. 황성원, 김동원, 김한철(2015). 태권도수련에 따른 지적장애인의 하지 등속성 근기능 및 뇌기능 지수 변화.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제23권 제1호, 117-131.

논문투고일 : 2019. 12. 31

논문심사일 : 2020. 01. 29

심사완료일 : 2020. 01. 31